WORK, LIFE AND SPIRITUALITY

일삶영성: 시간의 영성

WORK, LIFE AND SPIRITUALITY

© 130LAB

일삶영성연구소 130LAB은 일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제적으로 담기 위해 성경과 사회를 연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실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Institute of Studies of Work, Life and Spirituality.

일삶영성연구소, 130LAB
임진업 대표목사
www.130lab.org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와 625와 같은 '과거'의 시대적 아픔을 딛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의 기독교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삶영성'에서는 우리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 중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신앙 정신이 있다면 현재일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기존 기독교에서 충분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신앙 뿐만아니라 역사도 급격한 성장이 발생한 후에는 내실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제 우리는 겸손히 내실을 채워나갈 때입니다.

우리 삶이 '과거'는 이미 구속받고, '미래'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현재'의 우리 삶의 형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시간에 우리의 영성을 담아내는 작업 말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이야기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함께 조명해 봅니다.

CHAPTER 1
시간에 영성을 담다

시간은 곧 역사의 각 단면들이 모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시간의 영성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영성은 40년의 궁중생활과 40년의 광야생활 때에 준비되어, 80세의 나이에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

야구선구가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투수의 손가락으로부터 던져진 공은 시속 120km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고교시절부터 땀흘려 준비해 온 연습과정과 실전의 시간을 통해 다져진 타자의 강렬한 눈빛에서 공을 치기 위해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영성은 이와 같습니다. 영성은 시간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타자가 공을 치는 것이 아니며, 각고의 준비과정을 통해 누적된 시간의 결과물이 분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날아오는 공을 향해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공은 배트를 만나게 됩니다.

영성은 한 순간의 은혜도 아니며, 한 순간의 눈물과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

구원 받은 백성의 모습이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의 영이 지나가고(passover) 그렇지 않은 가정은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때, 어떤 가정은 믿음으로 좌우 문설주에 양피를 바름으로 비교적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양피를 물설주에 바르긴 했으나 정말 우리 집의 장자가 무사할 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양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신약에서 그것을 의로운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양피를 바른 후에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형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부정직하고 재물을 밝히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CHAPTER 2

믿음의 두 가지 형태: 신뢰와 순종

믿음은 머리 속 관념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동전의 앞 뒤 면과도 같습니다.

앞서 출애굽 10번째 재앙의 양피를 바르는 사건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즉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면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는 순종함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신뢰함과 순종함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입니다. 믿음으로 양피를 뿌렸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행실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

CHAPTER 3
구원의 의미 축소

구원은 과거와 미래를 구속할 뿐 아니라, 현재도 구속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구원은 병고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내세의 구원, 즉 천국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과거의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도 하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소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력과 군사력뿐만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는 반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평가는 매우 냉정하여서 사회 공론의 장에서 기독교는 이미 설 자리가 없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기독교 신뢰도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의 의미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해석하고 이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맛보거나 경험하는 삶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

전도서 말합니다...

CHAPTER 4
현재적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중 130LAB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현재적 영성의 균형이 현저히 낮아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 도서는 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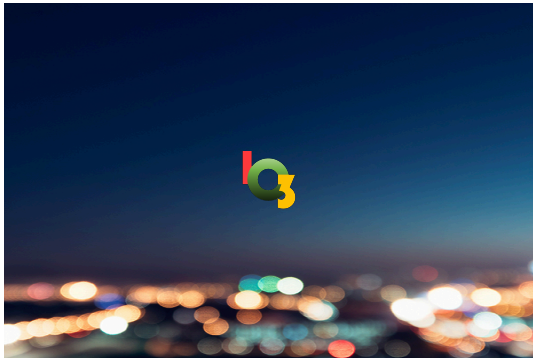
CHAPTER 5
뇌과학에서 증명하는 영성

오늘날 신학계에서 뇌과학과 신학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시도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는 영혼육을 명확히 구분하여 왔습니다.

■■

ABOUT THE AUTHOR



Daniel J. Lim of 130LAB